

Name: _____

어르신들을 위한 인공지능(AI) 돌봄 로봇을 개발, 공급하는 미스터마인드가 하나벤처스를 통해 15억원 규모 '프리A' 투자를 유치했다고 14일 밝혔다. 미스터마인드는 돌봄로봇을 이용해 어르신들의 원로, 치매를 평가, 정신건강 이상 징후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관리율을 제고한 것이다. 미스터마인드는 2017년 설립 후 인로뱅크, 빙저 스쿼이어에게 세우, 활로 투자를 유치한 기술 창업 투자 프로그램 린스(TIPS)에 선정된 기업이다. 아바타목 ~~기술~~ 아바타목 기술을 특허로 보호하고 있고 자연어처리(NLP)기술력도 보유하고 있다. 회사는 2019년 서울 마포구를 시작으로 30여국 지자체에 돌봄 로봇을 공급했다. 최근에는 충청북도과 울산광역시 등에 로봇을 제공했다. 서울 중대형 구청 개편으로 제작된 '공동어'와 정상북도 의성군의 '자주'와 같이 보유 미스터마인드가 제작한 돌봄로봇이다. 이 로봇은 어르신의 정신건강 이상 징후를 발견하는 역할을 한다. 미스터마인드는 로봇과 어르신의 대화, 자기 보고령 코드(SMCO, GDS) 등을 통해 습관 정보를 기반으로 어르신의 정신건강 상태를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

이 기술로 치매, 우울, 자살, 고독사 등의 이상징후를 조기에 발견 할 수 있어 또 이 로봇은 어르신의 건강관리를 보조하는 역할도 한다. 상담 대화를 담당해 하루에 10~20회 정도 어르신에게 꾸준히 말을 걸어 약 복용 시간을 알려주기도 하고, 어르신과 민시능력을 위한 퀴즈 대결도 한다. 김동원 미스터마인드 대표는 <AI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사람들에게 인공지능으로 만든 '원근'을 만들어주고 싶어 이 사업을 시작했다."며 ~~사람들의 일을 대신해주는~~ "사람들의 일을 대신해주는 AI 비서를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 '원근'을 만들어 주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라고 밝힌 바 있다. AI와 예술은 접목한 온라인 공간은 사기로웠지만 아쉬움도 있었다. 예술 체험 시 오류가 빈번하게 발생했고, 결과물의 품질도 사실 질감에 비해 떨어지지 않았고, 카메라 커튼이 다른 단순한 질감에 제대로 담기지 못했다. 자막 기능이 없어 청각 장애인들 듣기 어려웠다는 사람에게는 문명 지분이다.